

Justified by Faith Alone

Text: Galatians 2:10-21

Preacher: Rev. Yaqub Kashif

Beloved in Christ, grace and peace to you. Last Sunday we heard Paul cry with astonishment: “There is no other gospel.” Today, in Galatians 2, he takes us deeper into the very heart of that gospel. This chapter is not cold history but burning reality. It shows us that the gospel must be defended, lived, and declared: we are justified by faith, not by works of the law.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울의 놀라운 외침을 들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늘 갈라디아서 2 장에서 그는 우리를 그 복음의 심장부로 더 깊이 이끌어 갑니다. 이 장은 차가운 역사가 아니라 불타는 현실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변호되어야 하고, 살아내야 하며,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Paul begins by recalling his visit to Jerusalem. The apostles examined his message. If salvation required law, then Titus, a Greek believer, would have been circumcised. But he was not. Why? Because the truth was clear: “For we hold that one is justified by faith apart from works of the law” (Romans 3:28). James, Peter, and John extended the right hand of fellowship. One gospel for Jew and Gentile, one salvation by grace through faith. Already the victory was won Titus stood as living proof that we are justified by faith alone.

바울은 먼저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일을 회상합니다. 사도들이 그의 메시지를 검토했습니다. 만일 구원이 율법을 필요로 했다면, 헬라인 신자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진리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된다”(로마서 3:28).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교제의 악수를 내밀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하나의 복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하나의 구원. 이미 승리는 얻어졌습니다. 디도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살아 있는 증거였습니다.

But then Paul remembers Antioch, and the story turns heavy. Jews and Gentiles once shared the same table, proclaiming by their fellowship that all are justified the same way through faith. Then men arrived from Jerusalem, and Peter drew back in fear. His withdrawal spoke louder than words. It was as if he said, “Faith is not enough. Without law, you are still unclean.” And the damage spread even Barnabas was carried away. Church, do we see the danger? This was no small matter of table fellowship; it was the very truth of justification at stake. If Peter’s hypocrisy stood, the church would be divided, and the gospel denied.

그러나 바울은 안디옥을 떠올리며 심각해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식탁에 함께 앉아 교제를 나누며 모두가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도착하자, 베드로가 두려움에 물러섰습니다. 그의 물러섬은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 없이는 여전히 너희는 부정하다.” 그 피해는 확산되어 바나바마저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여, 이 위험을 보십니까? 이는 단순히 식사 교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칭의의 진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만일 베드로의 외식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 교회는 분열되고 복음은 부정되었을 것입니다.

Paul could not be silent. He opposed Peter to his face. Not because of pride, but because of love for Peter, for the Gentiles, for the gospel.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Habakkuk 2:4). To add law is to destroy grace. To retreat from faith is to abandon Christ. Sometimes silence is betrayal, and sometimes love must roar. Brothers and sisters, would we have stood with Paul, or blended in for the sake of false peace?

바울은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했습니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위한 사랑, 이방인을 위한 사랑, 복음을 위한 사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하박국 2:4). 율법을 더하는 것은 은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물러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배신입니다. 때로는 사랑이 포효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함께 섰겠습니까, 아니면 거짓된 평화를 위해 섞여 버렸겠습니까?

Out of this confrontation comes Paul’s thunderous declaration: “We know that a person is not justified by works of the law but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Galatians 2:16). Here is the heartbeat of the gospel. Justification is not earned but received. It is not “do and live,” but “believe and live.” Our righteousness is not our own, but Christ’s “not having a righteousness of my own that comes from the law, but that which comes through faith in Christ” (Philippians 3:9). Church, do we rest in this truth, or do we secretly cling to performance and ritual, as though His cross were not enough?

이 대립에서 바울은 우레 같은 선언을 터뜨립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노라”(갈라디아서 2:16). 이것이 복음의 심장 박동입니다. 칭의는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행하고 살라라”가 아니라 “믿고 살라라”입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의라”(빌립보서 3:9). 교회여, 우리는 이 진리 안에

안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행위와 의식을 붙들며 그분의 십자가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듯 살고 있습니까?

Paul then opens his life as witness: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who lives in me” (Galatians 2:20). This is not poetry; this is death and resurrection. The old Paul the Pharisee, the persecutor, the man of law and pride was nailed to the cross. That man is gone. In his place stands a new creation, Christ alive in him. This is the fruit of justification by faith: a new life, not improved but transformed. Beloved, can we say this with Paul? Has the old self truly died, or do we still cling to fragments of pride and law?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삶을 증거로 열어 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갈라디아서 2:20). 이것은 시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옛 바울, 바리새인, 박해자, 율법과 교만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새로운 피조물이 서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열매입니다. 새 생명은 개선된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는 바울과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옛 자아는 정말로 죽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교만과 율법의 파편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Finally, Paul ends with holy thunder: “I do not set aside the grace of God, for if righteousness were through the law, then Christ died for nothing” (Galatians 2:21). Nothing! To add law to grace is to insult Calvary. To trust in ourselves is to declare the cross a waste. But the gospel will not be mocked. Grace stands alone. Christ plus nothing. Christ alone. Justified by faith.

마지막으로 바울은 거룩한 우레로 마무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갈라디아서 2:21). 헛되이! 은혜에 율법을 더하는 것은 갈보리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것은 십자가를 헛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조롱당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홀로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 더하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얻습니다.

Church, this is not abstract theology it is life and death. If we live for man’s approval, we deny justification by faith. If we add our works to Christ’s, we deny justification by faith. If we compromise truth for comfort, we deny justification by faith. But when we cling to Christ alone, we are justified, made righteous, and given new life in Him. This is the gospel that saves. This is the gospel that sanctifies. This is the gospel we must guard, live, and pass on.

교회여, 이것은 추상적인 신학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위해 살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그리스도께 더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락함과 맞바꾸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의롭게 되며,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키고, 살아내고,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So let us live as those crucified with Christ. Let us stand with Paul and the saints of old. Let us declare with one voice: We are justified by faith. And let that cry echo to the nations, to the next generation, and to the end of the age.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아갑시다. 우리도 바울과 옛 성도들과 함께 굳게 섭시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이 외침이 열방에, 다음 세대에, 세상 끝날까지 울려 퍼지게 합시다.

There is no other gospel. There never has been. There never will be. We are justified by faith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who lives in me. And the life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Galatians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라디아서 2:20).